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http://www.mke.go.kr
자료문의 : 기후변화정책과 나승식 과장, 강진영 사무관(2110-5428)

지경부,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産官學 결과 설명 및 국내정책 점검

- 온실가스 감축 수단 보다는 검인증 체계 등 기반 확충에 주력할 필요 -

▶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(11.29~12.10, 멕시코 칸쿤)가 "칸쿤 합의문"을 도출하고 마무리됨에 따라, 지식경제부는 산관학 전문가들에게 그 결과를 설명하고, 우리나라의 향후 협상 전략 및 국내 정책을 점검

▶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,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투명성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,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등 새로운 감축 수단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검·인증 체계 구축 및 전문가 양성에 힘써줄 것을 건의

□ 지식경제부는 12.23(목) 대한상의,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,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**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**로 제8회 **「기후변화대응 산관학포럼」 회의**를 개최(※참고)

○ 동 회의는 11.29-12.10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를 점검하고, 향후 **협상 및 국내 정책** 추진 방향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

□ 현재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 종료(2012년) 이후에 대한 **선진국의 감축 의무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참여를 독려**하기 위한 **Post-2012 체제**에 대해 논의중

○ 당초 작년 말 코펜하겐 총회(COP 15)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, 금년 말 **칸쿤 총회로 협상 시한을 연장**하였으나 **주요 쟁점*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** 내년 남아공 당사국 총회('10.11.28-12.9)로 **협상 시한 재연장**

* '13년 이후의 교토의정서 연장 및 의무감축국의 감축목표, 법적 체제 등

□ 산업계는 협상 타결 시한이 재연장되고, 주요 쟁점이 여전히 미해결된 시점에서, **배출권거래제 등 감축정책의 도입 여부가 국제 협상 동향과 연계**되어야 함을 언급

○ 또한, 향후 **국제적으로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**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, 배출권거래제 등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에만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,

- 검·인증기관 역량 향상 및 데이터 구축 등 **MRV 관련 인프라를 구축**하고 **전문가를 육성**하는 것이 더욱 시급함을 지적하고, 이를 위해 **현재 도입된 목표관리제를 충분히 활용**할 것을 건의

□ 한편, 금번 협상에서는 **'칸쿤합의문'이 공식 채택**되어 **UN 다자협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**하고, 재정 등 일부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,

○ Post-2012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 등 **근본적인 이슈**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, **협상 지속을 위한 선언적 의미만 전달**했다는 평가도 제기

○ 또한, 협상관계자는 향후 **'칸쿤 합의문'을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 체제가 구축**될 경우, 의무감축국과 비의무감축국의 이분법적 구분 보다는 **각 국가별 상황에 맞는 감축 노력을 이행하는 체제로 변화될 가능성**이 높은 것으로도 전망

□ ‘칸쿤 합의문’에는 그 간 선진국이 강하게 주장하던 **개도국의 자발적인 감축행동에 대한 국제적 검토 및 분석***(ICA)과 **4년 주기의 국가보고서** 및 능력이 되는 국가에 대한 **2년 주기 중간 보고서** 제출을 규정

* ICA(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) : 개도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실시, 선진국에 의한 개도국의 감축노력 현황/효과 검토가 용이해짐

○ 이에 따라, 작년 말 발표한 우리나라의 **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(‘20년까지 BAU 대비 30% 감축) 이행 과정**에 대해서도 **국제적 검토**를 거치게 되므로 성실한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

〈 참고 〉 제8회「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」개최 개요

□ **목 적** : 국내외 기후변화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산관학 공동 대응

□ **일시·장소** : **‘10.12.23(목) 16:00~17:30, 지경부 4층 대회의실**

□ **참석자 : 약 30명**

○ **산업계** : 경제단체*, 업종별 단체** 및 주요 기업 대표들

* 대한상의, 전경련

** 대한석유협회, 한국제지공업연합회,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, 한국자동차공업협회, 한국철강협회, 한국반도체산업협회,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, 한국양회공업협회

○ **전문가** : 학계 및 유관기관, 연구기관 등

○ **정부** :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(주재), 기후변화정책과장 등

□ **논의주제** :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및 향후 전망